

2026년까지 4조원 들여 LNG 동북아 허브 구축

여수 묘도에 'LNG 터미널 구축' 사업 전망과 과제

여수 묘도에 대규모 LNG 탱크, 항만 등을 조성해 중국, 일본 등과의 LNG 무역 거점으로 삼으려는 '전남 LNG 동북아 허브 터미널 구축'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2021년 1월 폐쇄되는 묘도 내 기존 석탄 발전소를 LNG복합발전소로 교체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광양항 묘도중설토매립장 항만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해양수산부 등이 지난 5월 10일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막바지 절차에 들어갔다. 민간투자자인 (주)한양은 오는 2026년까지 약 4조원을 투입해 묘도를 LNG 동북아 허브로 구축하겠다는 투자 방침을 정하고 전남도와 투자 여건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약 4조원 투자-1단계로 1조3000억원 들여 LNG 탱크 4기 설치-민간투자자인 (주)한양은 묘도가 지리, 경제기반, 주변 여건 등에서 LNG 동북아 허브로 적합하다고 보고 사업을 추진중이다. 여수 광양만권은 여수국가산단 등 가스 수요처가 밀집되어 있고, 해상 물동량이 국내 2위로 LNG 병커링(선박용 연료 LNG 주입)에도 유리하다. 냉동창고, 공기분리공장과 같은 LNG병렬이용산업 등 연관산업 개발이 용이해 향후 발전 잠재력이 높다. 지정학적 위치상 LNG 소비국인 중국, 일본과의 거래도 가능하다. (주)한양은 지난 2017년

한양, 10월까지 합작법인 설립

중·일과 거래 가능 지리적 이점

석탄발전소 대체 대기질 개선

산자부 전력계획 반영 등 급선무

부터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 LNG업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 업체들과의 네트워크도 구축해놓은 상태다. 오는 10월까지 투자협약을 맺은 국내의 기업, 발전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신고하겠다는 것이 (주)한양의 복안이다. 이 같은 민간투자자의 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전남도는 비슷한 시기 여수시, 한전, 국내외 사업자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민간투자자는 자본출자 8000억원(국내 투자 4080억원 외국인 투자 3920억원)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3조2000억원을 조달해 LNG 탱크 20만kl(킬로리터) 13기와 항만시설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에 LNG 탱크를 임대하고, 중국·일본과 LNG를 거래하겠다는 것이다. 1단계로는 우선 1조3000억원으로 탱크 4기를 설치한다.

◇대기질 개선, 수소산업 기반 구축, 고용 창출 등 기대-전남도와 (주)한양은 묘

도 LNG 허브 구축사업이 2021년 폐쇄 예정인 노후 석탄발전소(1973년 가동)를 LNG복합발전소로 대체하면서 광양만권의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등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남도가 추진중인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보탬이 된다. LNG 공급망에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국가 그린수소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동부권에 수소연료 전지 및 부품 소재 생산기지, 중부권에 그린수소 에너지 연구개발 거점, 서부권에 그린수소 대규모 생산 및 실증단지 등을 구축할 방침이다. LNG 직도입에 따라 도내 기업에 저렴한 공급, 직접 고용 250명(건설근로자 75만명 일자리 창출), 지방세 연 41억원, 생산유발효과 5조7960억원(고용유발효과 8000명) 등의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TUA(터미널 이용계약) 확보, 제9차 전력수급계획 반영 등이 과제-전남도는 LNG 터미널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필수적인 TUA(Terminal Use Agreement, 터미널 이용계약) 확보를 위해 도 차원의 지원 여부를 검토중이다.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등 LNG 수요처를 대상으로 한 교섭에서 민간투자자만의 역량으로는 한계



여수 묘도 LNG터미널 구축사업이 신속히 추진되기 위해선 정부의 전향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여수산단과 묘도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가 있기 때문이다. 또 노후 석탄발전소를 LNG복합발전소로 대체하는 것을 산업자원통상부의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선결 과제다.

현재 LNG 터미널은 보령, 삼척 등에서 운영중이며, 울산이 새롭게 LNG터미널,

수소산업 등 에너지 분야 신산업에 주목하며 전남과 경쟁하는 구도를 보이고 있다. 보령 LNG터미널은 GS에너지 등 민간투자자가 1조2951억원을 들여 20만kl 탱크 4기, 45만t LNG 탱크 1기 등을, 삼척 LNG터미널은 한국가스공사가 2조7581

억원을 투자해 20만kl 탱크 9기, 27만kl 탱크 3기 등을 가동하고 있다. 울산은 LNG발전소, 가스탱크 터미널 건설, 북방에너지경제협력사업 등을 골자로 동북아 오일 및 가스허브 사업을 추진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文대통령 “6월중 남북정상회담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

“언제든 준비...김정은에 달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6월 중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한지는 저도 알 수 없다”며 “남북 간 짧은 기간에 연락과 협의로 정상회담을 한 경험이 있기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노르웨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총리관저에서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6월 중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제 답변은 나는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고, 그 시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슬로 포럼에 참석해 이날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이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시가장소·형식을 묻지 않고 언제든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런 시기를 선택할지는 김 위원장에게 달려있다는 말



노르웨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여사가 12일 오후(현지시간) 오슬로 왕궁에서 열린 국빈만찬에 하랄 5세 국왕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씀을 다시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내용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대강의 내용을 알려준 바 있다”며 “그 친서 내용 속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지 않

은 아주 흥미로운 대목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신 것 이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대북제재가 해제하려면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한 가리는 질문에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자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에는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상호 간 무력 사용도 금지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대폭 완화됐다. 한 반도를 분단하고 있던 비무장지대도 평화 지대로 전환하고 있으며, 동시에 인도적 교류와 지원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남북관계가 제대로 발전해 나가려면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협력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국제적인 경제제재 해제해야만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실질적 진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런 상황이 가급적 빨리 조성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김오수(56) 봉옥(54) 윤석열(59) 이금로(54)

검찰총장 후보 4명 압축 추천

김오수·봉옥·윤석열·이금로...靑, 내주 초 지명 가능성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4명이 선정됐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13일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 봉옥(54·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 이금로(54·20기) 수원고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정 전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꾸려진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각계에서 천거된 후보군을 대상으로 검증 작업을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0일 추천위를 구성

하고 13~20일 각종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후보 10여 명을 천거 받았다. 이들 중 인사검증에 동의한 8명을 상대로 재산·병역·납세 등을 검증해왔다. 박 장관은 추천위가 선정한 후보자 4명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며, 문 대통령이 제청자를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박 장관은 문 대통령의 유류 3개국 순회의를 열어 각계에서 천거된 후보군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무일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 종료된다. /연합뉴스

1566-9988

8 5 1
116 40 point

1 6 5 2 4
110 20 point

6 8 2 4 7 5 8 1
108 14 point

2 5 1 6 4 9 7 8 3
102 12 point

1 3 0 7 5 8 4 9 2
96 10 point

2 4 6 3 7 1 2 8 0
90 8 point

4 6 2 8 1 0 9 7 3
84 6 point

2 7 6 2 1 4 9 0 2
78 5 point

3 7 6 2 1 4 9 0 2
72 4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신세계안과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